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④ 대흥사 禪茶의 내력

禪茶一美 수행 풍토, 한국 차 문화 원동력

긴장과 불안에 노출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줌으로써 숨 돌릴 여백을 만들어주는 물질 중에 차만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옛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공감했던 차의 오묘한 효험(效驗)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필자 또한 응송 스님(1893~1990)과의 인연으로 '초의차(草衣茶)'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차의 공덕을 깊이 공감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차의 공덕을 노래한 조선 전기 이목(李穆)은 차의 이로움을 오공(五功)과 육덕(六德)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 실로 사람들이 차를 통해 얻었던 공효(功效)는 어느 시대이건 간에 유효하였으니 이는 차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진 연유이며, 현재·미래에도 이어져야 할 차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차의 이로움이 잘 드러나는 차는 어떤 종류이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그 내력을 따라가 보자.

7세기경 신라에 소개된 차는 녹차 종류로 덩이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이전 시대에 좋은 차의 기준은 녹차였는데, 이는 차 관련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특히 차는 감윤(甘潤)한 맛과 청량하고 환한 향기, 싱그럽고 온유(溫柔)한 생기(生氣)를 지녀야 최고의 차로 인식됐다. 이런 차의 맛과 향, 기세는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천연(天然)적인 것, 자연스러움과 상통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므로 제다의 중정(中正)이 실현된 차를 마시면 인간 본연의 평탄한 심신 상태로 회귀(回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 조화로운 차 맛과 향, 색, 기세는 제다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런 특성을 함의한 차는 번뇌를 사라지게 하며 수마(睡魔)를 멀리할 수 있는 효능을 지녔다. 필자가 제다를 통해 차의 오묘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었던 인연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응송 스님을 따라 차 인연의 퍼즐을 따라가다 보면, 범해 스님과 이어지고 초의 선사, 연담 스님, 서산 대사로 연결되는 대흥사의 선다(禪茶)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수행 풍토는 사찰의 오랜 수행 풍습이며 한국 차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다. 물론 불교의 성쇠는 차 문화의 흥성과 쇠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도 차 문화의 흐름은 도도히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초의 선사 다맥을 계승한 응송 스님이 사용했던 찻잔.

〈동다정통고〉 1911년 대흥사 차밭 기록
응송스님 "초의 선사 일궜던 차밭" 술회
좋은 찻잎 얻기 위한 선지식 노력 확인

아무튼 필자가 만든 동춘차의 연원은 응송 스님이지만 초의 선사로부터 이어진 셈이다. 올해로 45년 정도 차를 만들다 보니 우둔한 사람도 제다의 원리를 조금 간파하게 됐으니 이는 차를 만든 지 30년이 지난 이후였다. 특히 응송 스님이 초의 선사의 다풍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 인연은 그의 출가 본사가 대흥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응송 스님의 〈동다정통고〉에서 확인되는데, 1911년경에 출가한 후 다각 소임을 맡았다고 한다. 그의 다각시절은 1911년경부터 1919년까지 이어졌다. 이 무렵 대흥사에는 초의 선사(1786~1866)-범해 스님(1820~1896)-원응 스님(1856~1927)으로 이어지는 다풍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의 선사의 제다법이나 탕법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어져 실현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980년경 응송 스님은 어떻게 차를 만들었을까. 이 무렵 필자는 응송 스님의 수행처인 백화사에 머물며 차를 만들었다. 당시 응송 스님은 자신이 소유한 차밭이 없어 강진이나 진도, 담양 등지에서 찻잎을 따다가 차를 만들었는데, 이는 대흥사 경내에 차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흥사가 분지이므로 겨울이 몹시 추웠다. 한겨울 날씨는 해남 읍내보다 거의 3~5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추웠다. 그리고 1980~1985년경에도 대흥사 경내에는 차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이런 정황은 응송 스님의 〈동다정통고〉에 상세히 서술했다. 따라서 1911년경 대흥사 경내의 차나무 생육 분포 및 사찰의 찻잎 공급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초의 스님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나한전 동편 산울에 약간의 차나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차를 만들 때, 찻잎은 주로 인근 마을의 아낙네들이 초파일이 지난 후 근처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채취하여 가지고 오면 이를 매입하여 사용했다.

-〈동다정통고〉53~54쪽

위 인용문에 따르면, 그의 출가 당시만 해도 대흥사 경내에는 초의 선사가 조성했던 차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초의 선사는 대흥사 경내에 차밭을 조성하여 차를 만들고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조성한 차밭은 나한전 동편 산울이었고 1911년경에도 몇 그루의 차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초의 선사는 자신이 직접 조성한 차밭에서 차나무를 기르고 제다를 연구했기에 차를 따는 시점에 대해 정확한 학설을 피력한 것이며, 이는 그가 실증적인 차 연구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제다는 좋은 찻잎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이는 적절한 채다 시점을 결정하는 일이다. 초의 선사가 차나무를 기르고 제다를 하면서 알아차린 대흥사 내의 채다 시점은 입하(立夏) 전후로, 대략 5월 5일경이 적합하다는 그의 정의는 이런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초의 선사가 말한 제다법은 무쇠솥에서 찻잎을 덖는 초청법인데, 그 공정 과정은 선사가 쓴 〈동다송〉에 자세히 서술해 뒀다. 선사의 제다법은 15세기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잎차 제다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풍토와 한국인의 기호에 따라 특징적인 요소를 부각할 방법이 제다 공정 과정에 더해졌을 뿐 전반적인 공정 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맑고 시원한 맛과 화려하지 않은 순수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취향에 따라 제다할 때 화후의 문제, 유념의 강도, 재건을 위한 공정에 몇 가지 요소가 추가될 뿐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⑧

1. 현재 세계의 불교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불교의 세계화 양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에서 고립된 불교가 아니라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불교로 변하고 있다.
② 종파주의적 색채가 줄어들면서, 이를테면 퓨전식(式) 수행풍토가 강조되고 있다.
③ 기복적(祈福的)이나 의례 중심적인 불교에서 참선과 명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출가수행자 중심에서 출가자와 재가불자가 함께하는 불교수행공동체로 변하고 있다.
⑤ 포용성을 지닌 불교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신을 내세우는 종교로 변화하고 있다.

해설 : 세계화, 개방화는 합리적인 이성 위에서 참여와 상호(출가-재가와 같은 양극)의 협력과 실천의 융합(퓨전)에서 이루어짐으로 초자연적이고 절대(종파)적인 인격신을 내세울 경우 세계화, 개방화와는 멀게 된다.

2. 다음은 오늘날 서양에서 불교가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②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③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④ 평화주의적이고 자연과 합일하는 친환경적인 성격 때문에
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서구 전통과 일치하기 때문에

해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가 깊이 음미해보고 사색하여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 믿으라고 하셨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불교의 믿음이 아니다.

3. 다음은 가톨릭과 성공회 수녀, 불교 비구니 스님, 원불교 여자 교무 등 다양한 종교의 여성 수도자들 모임인 '삼소회' 회원들이 인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의 종교 성지와 테러 현장을 순례하며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모습이다. 이때 올린 기도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록 종교의 문을 달리하였으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나이다.
② 진정으로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세계평화를 꽃피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기원하나이다.
③ 저희들의 이 기도가 인류의 가슴을 적시고 일체 생명을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안기를 기원합니다.
④ 이 평화로운 땅에 테러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아 응분의 대가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⑤ 저희들은 독선과 아집과 편견을 넘어, 한국 여성 수도자의 이름으로 세계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기원하나이다.

해설 : 테러의 업보는 우리가 굳이 기원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과이다.

4. 최근 서양인들은 배타적인 인격신 대신 포용성을 지닌 불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양 불교의 최근 현황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유럽의 불교는 주로 동양의 전통적인 불교의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② 서양인이 추구하는 불교는 크게 선불교, 티베트불교, 상좌부계통의 불교이다.
③ 불교의 평화주의적이고 자연과 합일하는 친환경적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초기에는 주로 학자들의 학문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수행체험을 중시하고 있다.
⑤ 선불교는 1893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 이후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해설 : 유럽에서는 배타적인 인격신 대신 포용성, 그리고 합리성과 이성에 기초한 불교에 주목하고 있기에, 동양의 전통적인 불교의식보다는 실천적인 수행이나 교학 연찬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답 : ① ⑤ ② ③ ④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